

5대 자산 종류 은퇴자산 / 주택자산 / 투자자산 / 보장자산 / 예비자산

지금부터 5가지 자산의 기본 특징과 관리 노하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은퇴자산 : 국민연금/ 퇴직금-기업연금/ 개인연금-펀드,변액

평범한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퇴를 했을 때

수입이 끊기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 굉장히 큼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는 모든 돈을 노후자산용으로 모을 수 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언젠가는 시작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자산의 형성을 마냥 미룰 수 만도 없습니다.

은퇴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이상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투자로 가능하며 부자가 되는 핵심 방법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높은 변액보험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복리효과로 인해 느리지만 천천히 안정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의 경우 **3층 연금체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기본적인 삶) / 퇴직연금(표준적인 삶) / 개인연금(여유로운 삶) 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운용이 불가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으로 기대수익은 낮지만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으로 기대수익은 낮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이 운용가능하며 공격적인 자산운용도 가능하여 기대수익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의 적정납부액 : 경제활동시작~ 은퇴까지 -> 월소득 10%~15% 저축

은퇴후에도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소득의 60~70% 소득 정도가 필요합니다.

2. 주택자산 : 집/ 자기돈+대출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만 뻔한 월급과 각종 지출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내 집 마련, 주택 구입의 꿈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교육 등 부담되는 지출규모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의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과 주택구입에 따른 기회비용 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실물자산으로써 주택이 지니는 메리트와 물가상승을 따라가는 투자가치를 따졌을 때

주택구입은 반드시 이루도록 경제적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구입을 계획할 때에는 직접 살 집인지, 투자를 위함인지,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주택보유의 매력은 감소했지만, 그래도 주택은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식형펀드 등의 상품이 좋으며, 주택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부동산자산은 부채가 발생해야 하는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7:3:3 원칙 -> 자기자본 70% 이상 : 부채 30% 이하 :
이자비용(월소득의 30% 이하)

3. 투자자산 : 자녀양육자금/ 자동차/ 여행자금/ 자녀유학자금 등 예금, 적금, 주식, 펀드 통칭

자동차구매 등 소비성 자금과 함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3~5년 정도 중기 투자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거나 펀드 등을 활용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을 포함한 다른 모든 자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자산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투자자산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이루기
위해서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원금을 보장 받고, 채무를 지지 않는 전제하에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적인 자유도를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투자자산이란 저축을 통해 위해 투자하는 자산을 말하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투자자산의 경우 기간에 따라 효율적인 금융권이 나뉘집니다.

단기(1~2년) : 안정성 -> 은행

중기(3~10년) : 수익성 -> 증권사

장기(10년이상) : 수익성, 복리 + 비과세, 수수료면제 -> 보험사

또한 원금보장과 원금비보장으로 나누어 본다면,

원금보장(예금, 적금)은 안정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도라는 위험(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과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금비보장(주식, 펀드)은 수익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장변동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4. 보장자산 : 의료실비보험/ 암, 상해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전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보장자산입니다.



수입의 10% 가량을 인생의 안전판을 마련하도록 지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것으로 부터

나는 100% 자유롭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성실히 일하며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도 본인이나 가족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찾아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장자산이 필요한데 흔히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장자산을 준비하실 때는 보장내용과 내용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 - 고위험 : 암, 뇌, 심장의 3대질환 -> 소득의 중단, 고액의 치료비(몇 천 만원)

2순위 - 중위험 : 수술, 입원 -> 소득의 일시적인 중단, 치료비 필요(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

3순위 - 저위험 : 감기 -> 소득의 중단이 없음, 치료비 낮음

^{보장자산}
3순위의 저위험을 위해서 위험~~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 중위험으로 인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연령대에 금액으로 효율적인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예비자산 : 유동성 + 이자 (CMA/ MMF)

앞서 네 가지 자산 항목을 딱딱 맞게 운영한다고 해도 뜻하지 않게

갑작스런 현금성 자산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돌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를 대비해서 현금성 예비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비자산은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CMA통장과 같이 단기저축을 해도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으며,

월급의 3~4배 정도 되는 금액을 현금성 자산으로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예비자산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만약의 일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자금 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뜻하며, 생활비의 5배 가량을 예비자산으로 구성하고

CMA나 MMF 등 단기 투자 상품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자산의 경우 아래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정기적인 지출이 아닌

비정기적인 지출에 활용하시기 위한 자산입니다.

자동차보험, 경조사비, 이직 혹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중단 시 저축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예비자산 적정규모 : (고정지출+변동지출-소득세) X 3(미혼/
맞벌이)

(고정지출+변동지출-소득세) X 6(사업자/
외벌이)